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2006. 3. 8 배포
- 농림부 소득관리과
과장 임재암
사무관 김완수(kimws@maf.go.kr)
- ☎ 02-500-2112

이 자료는 2006년 3월 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목 : RPC 경쟁체제 도입

- 벼매입 우수 RPC 적극 지원

① RPC신규진입·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

- '06년부터 RPC진입·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, 벼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진입 허용
- 농가벼 매입에 적극적인 RPC는 정부지원 확대, 벼매입이 부진한 RPC는 지원중단(퇴출)

* RPC(Rice Precessing Complex) : 벼의 수집, 건조·저장·가공 및 유통 등 전 과정을 일관처리하는 시설(미곡종합처리장)

② '06년에 RPC 수탁판매제 시범 도입 등 매취방식 개선

③ RPC 중심,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추진

④ RPC 건조·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

- '10년까지 건조·저장시설 1,130개소 신규지원(저온시설 297개소 포함), 통합RPC 가공시설 지원(100개소)

⑤ RPC 경영평가제 개선, 경영우수RPC에 정부지원 집중

- RPC 규모화를 위해서 경영부진RPC 통합 적극 추진

- 농림부는 RPC 경쟁체제를 도입, RPC 매취방식 개선, RPC 경영평가 및 규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RPC 경영개선 대책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- 농림부는 지난 '91년 - '01년까지 수확후관리 개선 및 산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쌀주산지 119개 시·군을 중심으로 RPC 328개소를 설치·지원하였다.
 - RPC사업을 통해서 비용절감(△34%), 미질향상, 산지유통개선, 계약재배 및 농가벼 매입 등 쌀산업 발전에 기여 해 왔으나,
 - * 계약재배 : ('03) 245천ha → ('04) 289 → ('05) 322 → ('06P) 350
 - * 수확기매입 : ('00) 644만석 → ('03) 708 → ('04) 714 → ('05) 778
 - RPC간 경쟁체제와 수확기 매입 기피시 제재수단이 미흡하며, 건조·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(野積)벼 발생으로 품질 저하, 가공시설 노후화(전체시설의 70% 수준) 등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.

- 이에 따라 RPC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벼를 많이 사게 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 규정을 개선, 경쟁체제를 도입하고, RPC경영평가를 강화하여 경영부진RPC의 통합 및 퇴출 유도, RPC 수탁판매제 시범도입, RPC시설개선 등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·추진하기로 하였다.

RPC 경영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

① RPC 신규진입·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

-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가격지지정책을 폐지하고 시장 위주로 전환
-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RPC 등 산지민간유통 기능이 중요
- '91~'01년까지 수확후 관리개선 및 산지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RPC 328개소 설치·지원하였다.
 - '02년부터 RPC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·저장시설 689개소 지원
- 현재 RPC 인정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 9,184억원(RPC 평균 28억원)을 지원하고 있으나,
- RPC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농가벼 매입과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을 함에도 불구하고, RPC 신규진입이 어려워 정부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왔다.
- '06년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확기 벼매입에 적극적인 RPC에 자금 지원을 집중해나가는 한편, 지원자금의 1.5배 이상 농가벼를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고 미이행업체는 지원을 중단(퇴출)할 계획이다.
-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RPC의 벼 매입이 촉진되고, 또한 벼 매입에 소극적인 RPC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장기적으로 RPC 등록제도입, 의무 준수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·추진하기로 하였다.

[2] RPC 수탁판매제 도입

- RPC가 수확기 이전에 예상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
- 금년에 RPC 자체매입량의 10% 수준에서 수탁판매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, 수탁판매RPC에 약 1,000억원 수준의 수탁선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수탁판매제의 경우,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,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3] RPC중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

- 금년 6월까지 고품질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·배부(6월까지)
- '10년까지 시·군단위 통합브랜드(100개) 육성
- 우수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쌀평가를 하고,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시상금(50만원~200)지급,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- 시장경쟁에 의해 대표브랜드 선정·육성함으로써 시장이 주도하는 체제정착이 기대된다.

④ RPC 건조·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추진

- RPC의 건조·저장시설을 '10년까지 당초 619개소에서 1,130개소로 대폭 늘려 지원하고,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297개소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통합RPC(100개소)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유통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RPC의 부족한 건조·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하고,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으로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⑤ RPC 경영평가, 규모화 등 경영혁신 추진

- RPC 경영평가는 수확기 농가벼 매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확기 원료곡확보량(5점→10), 계약재배실적(5점→10) 등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친환경쌀 판매실적 지표를 신규반영(5점)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.
- 경영평가 결과 경영부진RPC의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RPC에 대한 운영자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.
* 농협RPC 통합실적('04~'05)계획 : 7개시·군 25개RPC가 7개로 통합
- RPC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우수 RPC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경영활성화 및 경영부진 RPC의 통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⑥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 투자계획

- '06~'10년까지 RPC 시설확충을 위해 8,485억원 투자할 계획이다.
- * 건조·저장시설 1,130개소, 5,860억원, 가공시설 현대화 100개소, 2,000억원, 품질검사장비 250개소, 125억원 등